

최서해 소설에서 가족 살해와 사적 폭력의 의미

석형락*

요약

이 논문은 최서해 소설에 나타난 가족 살해와 사적 폭력의 의미를 밝혔다. 최서해 소설에 나타나는 가족 살해는 설화, 신소설 등의 가족 살해 모티프를 계승했지만 그 양상이 다르다. 가족 살해를 다룬 최서해의 소설은 양상에 따라 가족 살해 충동을 느끼는 작품과 가족 살해를 실행하는 작품으로 구분되고, 가족 살해를 실행하는 작품은 양상에 따라 가족 유기와 가족 살해로 구분된다. 이 소설들의 주제 의식은 인과응보·권선징악 등의 전근대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경우,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옹호와 비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근대적 제도의 부재를 비판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 살해 충동은 한 가족의 빈곤과 그에 따른 고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그 비극성을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가족 유기는 현실도피 외에는 달리 의미를 찾기 어렵다. 가족 살해는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옹호와 비판의 양가적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극단적 가족 살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로서의 근대가 부재함을 고발한다. 근대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서해 소설에서 사적 폭력은 단순한 광기와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근대적 제도의 부재를 고발하고, 제도의 확립과 정당한 집행을 희망하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사적 폭력은 근대적 의료 제도의 부재, 수재민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제도의 부재, 간도가 제도가 부재하는 무법지대라는 사실을 고발한다. 최서해 소설에서 인물의 자기 처벌 충동은 가족 살해 충동과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바탕에는 사랑과 책임감이 있다. 여기에 가족 살해라는 극단적 행위가 소설 속 인물들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고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이유가 있다. 인물의 자기 처벌 충동은 최서해가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랄이

*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강의교수

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최서해, 가족 살해, 사적 폭력, 자기 처벌, 모랄

1. 들어가며
2. 가족 살해, 근대적 제도의 부재 고발
3. 사적 폭력, 근대적 제도의 확립 희망
4.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논문의 목적은 최서해 소설에 나타난 가족 살해와 사적 폭력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최서해는 처녀작 『토혈』(『동아일보』, 1924.1.23-2.4)을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여 1932년 작고할 때까지 8년에 걸쳐 장편 1편, 단편 50여 편을 비롯하여 다수의 평론, 수필 등을 발표했다. ‘조선문단합평회’¹⁾에서 실감나는 묘사로 문단의 주목을 받기²⁾ 시작한 최서해는 이후 동료작가들에게서 “고리키의 기완(技腕)을 연상”³⁾시키는 묘사, “넓고 크고 굳센 구상(構想)과 필치”⁴⁾ 등의 평가를 받았다. 최서해는 문단

1) 최서해의 단편 『탈출기』는 제2회 조선문단합평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내용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근래에 내가 본 중으로는 이러케(탈출기) 인상 김혼 작은 처음 보았습니다.”(백화), “3월 창작소설 중으로는 제일이야요.”(상섭), “다른 사람들이 푸로계급을 쓴 데는 실감이 없는데 여기(탈출기)는 실감이 있서요.”(병허) 『조선문단합평회 제2회—3월 창작소설 총평』, 『조선문단』, 1925.4, 81-82면.

2) 최서해 소설이 『조선문단』과 『개벽』에서 승인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박현수, 「최서해 소설의 승인 과정과 에크리튀르의 문제—조선문단합평회와 『개벽』 『월평』을 통해 본 1920년대 중반 문단의 지형도」, 『반교어문연구』 26, 반교어문학회, 2009.2, 375-404면.

3) 상화, 「지난달 시와 소설」, 『개벽』, 1925.6, 124면.

4)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전집(II)』, 영남대학교 출판부,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나도향이 작고한 후 묘비를 세우는 데 앞장섰고⁵⁾, 『현대평론』의 추모 특집을 기획했다. 아픈 동료가 있으면 약을 들고 찾아다녔고, 가난한 동료작가들의 원고를 팔아주는 데에 힘썼다.⁶⁾ 때문에 최서해가 작고했을 때 자동차 행렬이 4, 50대에 이를 만큼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졌다.⁷⁾ 전영택은 애도문에서 “문단이 적막하고 문단에 인격자가 업고 인물이 귀한 이 때에 우리는 더욱 서해를 생각하게”⁸⁾ 된다고 썼다. 최서해가 작품활동이나 문단활동에서 동료작가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최서해의 문학적·작가적 위상은 당대에 그치지 않았다. 최서해의 작품 경향을 지칭하는 ‘최서해적 경향’¹⁰⁾은 이후 후배 작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¹¹⁾

최서해 소설은 1980년대까지 리얼리즘, 신경향파, 빈궁, 체험, 반항의 문학으로 논의되어 왔으나¹²⁾, 최근에는 다양한 시각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화자의 위치와 서술 방법을 논의한 김성옥¹³⁾, 기록을 소설화하는

1997, 374면.

- 5) 엄상섭, 『서해 3주기에』, 『매일신보』, 1934.6.12-13.
- 6) 김동인, 『사람으로서의 서해』, 『삼천리』, 1932.8, 92면.
- 7) 김동인, 『문단 30년의 자취』, 김치홍 편, 『김동인평론전집』, 삼영사, 1984, 488면.
- 8) 전영택, 『서해의 예술과 생애』, 『삼천리』, 1934.8, 172면.
- 9) 최서해의 작고 이후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석형락, 『근대문단 형성기 작고 작가 애도문 연구—한국근대작가론의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현대소설연구』 6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12, 205-249면.
- 10) 임화는 신경향파 문학을 박영희적 경향과 최서해적 경향으로 구분하여 논의한 바 있다. 임화, 『조선신문학사론 서설—이인직으로부터 최서해까지』, 『조선중앙일보』, 1935.10.9-11.13. (여기서는 임규찬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435면) 최서해적 경향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박진영, 『임화의 문학사론과 신문학사 서술』,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임화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4, 106-129면.
- 11) 가령 젊은 작가 김이설의 일부 작품은 최서해의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사구조 및 주제 의식과 흡사한 데가 많다. 특히 단편 『아름다운 것들』(『한국문학』, 2014년 봄)은 21세기판 『기아와 살육』이라 부를 만하다. 관련하여 다음의 논을 참고. 석형락, 『세계를 버리는 자들의 목소리—김이설, 임철우의 근작 읽기』, 『문예연구』 81, 2014년 여름, 문예연구사, 210-220면.
- 12) 락근, 『최서해 연구사의 고찰』, 『반교어문연구』 22, 반교어문학회, 2007.2, 175-201면; 신춘호, 『최서해—궁핍과의 문학적 싸움』,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최서해 소설의 창작방법을 논의한 이경돈¹⁴⁾, 1920년대 중반 최서해의 소설이 끼니의 위기를 전면적으로 다룬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한 김동식¹⁵⁾, 행복의 감정을 통해 최서해 소설의 변화와 의미를 논의한 최병구¹⁶⁾, 최서해리는 빈민 출신 작가가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을 회령 신우조를 통해 논의한 유승환¹⁷⁾, 최서해 소설을 사적 영역과 공적 실천의 두 범주로 구분하고 분노의 기원을 탐색한 한수영¹⁸⁾, 최서해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잔혹함과 처참함에 주목하여 파국의 상상력을 설명한 김재영¹⁹⁾, 가난과 근대문학의 관련을 통해 최서해 소설을 논의한 안용희²⁰⁾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질문이 있다. 단편 『폭군』에 대한 현진건의 언급을 들어보자. “춘삼이가 왜 그렇게 광란에 갖가운 주정을 하였는가, 왜 선량한 안해를 포학하게도 처죽였는가 아모리 뒤져 보아도 작자의 단 한마디의 대답도 발견할 수가 없다.”²¹⁾ 등장인물의 광란에 가까운 주정과 아내 살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핵심은 가족을 꼭 살해해야만 했느냐이다. 왜냐하면 가족 살해는 근면, 성실 등의 부르주아 시민 윤리²²⁾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 읽힐 수 있

13) 김성옥, 『최서해 소설 연구』, 지식과교양, 2012.

14) 이경돈, 『최서해와 기록의 소설화』, 『반교어문연구』 15, 반교어문학회, 2003.8, 119-141면.

15) 김동식, 『1920년대 중반의 한국문학과 ‘끼니’의 무의식: 김기진과 최서해, 그리고 ‘밥’의 유희론』, 『문학과환경』 11(1), 문학과환경학회, 2012.6, 175-205면.

16) 최병구, 『운명과 행복, 근대(인)의 자기인식과 그 매개—최서해 소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2집, 국제어문학회, 2017.3, 181-202면.

17) 유승환, 『1923년의 최서해—빈민 작가 탄생의 문화사적 배경』, 『한국현대문학연구』 52, 한국현대문학학회, 2017.8, 221-264면.

18) 한수영, 『분노의 공과 사—최서해 소설의 분노의 기원과 공사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9, 363-398면.

19) 김재영, 『최서해 초기 소설에 형성된 “공포”와 “파국의 상상력”』, 『현대문학의 연구』 5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2, 291-320면.

20) 안용희, 『“그늘에 피는 꽃”, 최서해 문학의 아포리아』, 『민족문학사연구』 57,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5.4, 9-38면.

21) 빙허, 『신춘소설만평』, 『개벽』, 1926.2, 102면.

22) 차남희, 『노동의 신성화와 동학의 근대성—최서형을 중심으로』, 『담론201』 13(2), 한국사회역

기 때문이다. 어째서 최서해 소설에서 등장인물은 가족을 살해해야만 했는가. 어째서 가족 살해를 다룬 소설이 윤리의 파탄으로 읽히지 않을 수 있었는가.²³⁾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최서해 소설에 나타난 가족 살해의 양상을 구분하고 그 의미를 규명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최서해는 홀로 문학수업을 하던 시기에 설화 및 신소설을 많이 읽었다.²⁴⁾ 최서해의 소설에서 소재적, 내용적 측면에서 전근대적 요소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홍기돈은 근대문단 형성기에 등장한 작가들을 남행열차와 북행열차로 구분하고, 북행열차에 속하는 최서해 소설을 근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²⁵⁾ 이에 이 논문은 최서해 소설을 설화, 신소설 등의 연장선상에서 읽되, 그 차이에 주목하여 가족 살해와 사적 폭력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최서해 소설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존중하면서, 가족 살해의 시각에서 최서해 소설을 다시 읽는 시도에 해당된다.

2. 가족 살해, 근대적 제도의 부재 고발

“그 작(作)에 기교로 보아서 반드시 주인공이 살인을 하거나 밋치지 말

사학회, 2010.5, 45-64면. 차남희는 19세기 동학 이후 사·농·공·상의 직업 구분과 그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유교 사회에서 벗어나 근면, 검약, 성실, 겸손 등의 시민 윤리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내면화되었다고 논의했다.

23) 박영희는 최서해의 소설에 대해 “누가 읽든지 불쾌한 느낌 없이 다들 좋아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 앞의 책, 373면.

24) 신춘호, 앞의 책, 12면.

25) 홍기돈, 『최서해 소설의 문학사적 의미』, 『비평문학』 30, 한국비평문학회, 2008.12, 427-443면. 홍기돈은 최서해가 근대적인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학습을 한 지식인이 아니라는 것, 최서해의 소설이 민중적인 정서가 강하다는 것, 최서해 소설에 나타나는 환상이 이성 중심주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현실을 새롭게 복원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든다.

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경우이라도 작자의 관찰과 표현 여하에 따라서는 종래의 태도를 엿보게 하여줄 수도 있겠겠다는 말입니다.”²⁶⁾ 제5회 조선문단합평회에서 염상섭이 『기아와 살육』을 평가하며 한 말이다. 『탈출기』를 비롯하여 이전까지 최서해의 작품에 대해 호평하던 것과는 달리 염상섭과 나도향은 시종 『기아와 살육』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한다. 특히 염상섭은 최서해의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인생관이 『기아와 살육』에서는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굿세계 살자”는 인생관이 『기아와 살육』에서는 “생활에 패배를 당하고 자기를 멸살(滅殺)²⁷⁾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멸살’은 바로 가족 살해를 가리킨다. 염상섭의 말대로 소설 속 등장인물이 살인을 하거나 미칠 수는 있다. 하지만 가족 살해는 작가의 관찰이나 표현 여하에 따라서 종래의 태도, 즉 ‘굿세계 살자’는 인생관²⁸⁾을 보여줄 수 없다. 근대 부르주아의 윤리에 가족 살해는 포함될 수 없다. 『홍염』에서 문제 해결을 발견할 수 없다는 주요한의 비판²⁹⁾ 역시 동일선상에 있다. 최서해의 소설은 부르주아 계급의 시선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임계점에 있다. 근대의 핵심은 다름 아닌 근대적 제도의 형성과 기능에 있다. 『기아와 살육』은 그 제도의 부재를 가족 살해를 통해 제시했다.

가족 살해는 설화의 중요한 모티프 중 하나다. 『아기장수』, 『송순매아』, 『비정한 남편』, 『변심한 마누라』 등이 가족 살해를 모티프로 하는 대

26) 『조선문단합평회 제5회—6월 소설 창작 총평』, 『조선문단』, 1925.7, 150면.

27) 위의 책, 149면.

28) 『탈출기』에 나타난 인물의 내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왜 우노? 울기만 하면 무엇 하나? 살자! 살자! 어떻게든지 살아 보자! 내 어머니와 내 아내도 살아야 하겠다. 이 목숨이 있는 때까지는 벌어 보자!” 최서해, 『탈출기』, 『조선문단』, 1925.3, 28면. (여기서는 꼭근 편, 『최서해 전집 상』, 문학과지성사, 20면. 이하 작품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전집 권수, 면수를 기입함)

29) 주요한, 『취제(取題)의 경향과 제3층 문예운동—신년호 소설 월평』, 『조선문단』, 1927.2, 52면. 해당 구절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사건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 원수의 집을 불질르고 달아나는 부녀는 어디로 가라 하는가. 그들의 아페는 무슨 광명이 있나. 또 다른 지주, 또 다른 빚쟁이가 잇을 것뿐 아닌가.”

표적인 설화들이다. 임형모는 한국의 설화를 「콩쥐팍쥐」형과 「바리데기」형으로 구분하고, 계모가 진실 자식을 살해하기를 욕망하는 전자에 비해 후자는 친부가 자신의 딸을 버리는 기아 모티프를 보여준다고 논의한 바 있다.³⁰⁾ 그에 따르면 가족 살해를 모티프로 하는 한국의 설화는 현실적인 좌절과 희망의 재생산을 보여주는 서사구조를 지닌다. 가족 살해 모티프는 신소설에서도 발견된다. 이해조의 「구의산」(1911), 최찬식의 「능라도」(1919) 등이 가족 살해를 모티프로 하는 대표적인 신소설들이다. 최진옥은 최찬식의 신소설을 대상으로 신소설에 나타난 가족 살해 모티프와 가족주의를 논의한 바 있다. 최진옥은 「능라도」, 「도화원」(1916), 「춘몽」(1924)을 대상으로 최찬식이 작품에서 전처 자식의 살해를 기도하는 계모와 팜므 파탈적 악녀를 등장시키고, “가족 살해의 원인을 가해자 여성 개인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식민지 초기(개화기) 가족 제도의 변화와 그로 야기된 문제들을 외면”³¹⁾했음을 논증했다.

이처럼 한국근대소설이 설화에서부터 신소설을 거쳐 가족 살해 모티프를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티프가 가족 내의 권력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부계 중심 사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논의였다. 그런데 최서해의 경우는 그 양상이 다르다. 최서해의 소설은 부계 중심 사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 살해 모티프를 1920년대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재설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때문에 최서해의 소설은 설화, 신소설과의 연속성과 차이를 중심으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최서해 소설에 나타난 가족 살해의 양상을 살펴보면, 서로 모순되는 주제의식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살해를 다룬 최서해의 소설은 양상에 따라 가족 살해 충동을 느끼는 작품(『도혈

30) 임형모, 『한국과 몽골설화에 나타난 “가족 살해” 모티프—친부 및 자식 살해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6, 한성어문학회, 2007.9, 394-400면 참고.

31) 최진옥, 『신소설에 나타난 가족 살해 모티프와 가족주의 고찰—최찬식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1, 한국현대문학회, 2013.2, 21면.

』, 『해돋이』, 『아내의 자는 얼굴』과 가족 살해를 실행하는 작품(『탈출기』, 『기아』, 『그믐밤』, 『기아와 살육』, 『폭군』)으로 구분된다. 이어서 가족 살해를 실행하는 작품은 양상에 따라 가족 유기(『탈출기』, 『기아』)와 가족 살해(『그믐밤』, 『기아와 살육』, 『폭군』)로 구분된다. 가족 살해를 다룬 최서해의 소설들은 주제의식에 따라 인과응보·권선징악 등의 전근대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경우,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옹호와 비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근대적 제도의 부재를 비판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각각에 해당하는 작품을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양상과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① 악독한 마귀가焰焰(焔焔)한 화염을 우리 집으로 향하여 뿔뿔히 쪼갠다. 집은 탄다. 잘 탄다. 우리 식구도 그 속에서 타 죽는다. 나는 몸살을 치며 눈을 번쩍 떴다. 그것은 환상이었다. (...) 모두 죽었으면 시원하겠다고 나는 생각하여 보았다. 어머니도 죽고, 처도 죽고, 몽주도 죽고.....³²⁾

② 아! 어머니는 또 내 일에 방해를 놓으시나? 하고 생각할 때 칼이라도 있으면 그 앞에서 어머니를 찌르고 자기까지 죽고 싶었다.³³⁾

③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서 지난해의 모습이 다 스러진 아내의 자는 낮을 볼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오오 주린 귀신이야!”

하였다. 그의 눈에는 핏대가 섰다. 그 모든 것이 보기가 싫었다. 주위는 검은 연기가 들어찬 것 같았다. 그만 칼이나 도끼로 아내를 푹 찌어서 그 꼴을 보지 말고 자기도 죽어 버리고 싶었다.³⁴⁾

32) 『토혈』, 『전집 상』, 113면.

33) 『해돋이』, 『전집 상』, 202면.

34) 『아내의 자는 얼굴』, 『전집 상』, 322면.

인용문 ①은 『토혈』의 한 장면이다. 서술자 ‘나’는 가장이다. 이월의 북국에서 노쇠한 어머니와 병석에서 신음하는 아내, 세 살 난 딸 몽주를 책임져야 한다. 생활은 곤궁하여 아픈 아내에게 약을 먹일 수도 없고, 딸에게 입힐 옷도 없다. ‘나’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 ①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나’의 심정을 보여준다. 화염이 집을 덮치고, 그 속에서 가족이 타 죽는 모습을 떠올리는 환상, 모두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심정 등이 가족 살해 충동의 일단을 보여준다. 여기서 환상은 가족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나’의 불안을 방어하고, 불안을 가족 살해 충동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인용문 ②는 『해돋이』의 한 장면이다. 만수는 인류를 건지려는 바람을 펼치기 위해 만주로 가고자 한다. 이에 만수의 어머니 김 소사가 따라가고자 하니 만수는 어머니가 자신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어머니에 대한 살해 충동을 느낀다. 만수는 새로운 사상에 눈뜨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마다 어머니를 버리거나 죽이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 때문에 이 소설에서 가족 살해 충동은 어머니로 상징되는 구사상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 ③은 『아내의 자는 얼굴』의 한 장면이다. 기선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나뭇바리’, ‘의복’, ‘토장국 조밥’을 삶의 최소조건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어리고 약한 아내가 차가운 구들에서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괴롭다. 특히 포동포동한 뺨과 윤기가 흐르던 입술이 불과 일 년 만에 사라진 모습을 보고,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리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 물론 아내의 변화는 가난에 기인하고 그 중심에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이 있다. 여기서 가족 살해 충동은 자신의 무능과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인물의 내면을 드러낸다. 이상 살펴본 세 작품에서 가족 살해 충동은 실제 살해로 이어지지 않는다. 세 작품은 한 가족의 빈곤과 그에 따른 고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특히 가장의 내면을 살해 충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어 그 비극성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볼 작품들은 가족 살

해 충동이 실제 행위로 이어지고 있어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 최서해 소설에서 가족 살해 행위는 가족 유기와 가족 살해로 구분된다.

④ 김군! 거듭 말한다. 나도 사람이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떠나는 날부터 식구들은 더욱 곤경에 들 줄도 나는 안다. 자칫하면 눈 속이나 어느 구렁에서 죽는 줄도 모르게 굶어 죽을 줄도 나는 잘 안다.³⁵⁾

⑤ 처음 학범을 업고 집을 나설 때에는 학범을 한강에 집어 넣으려고 하였다. 기구한 자기 앞에 굶주리는 것보다 어서 없어져서 후생이나 잘 살게 되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었으나 어린 그 목숨을 끊기는 철호의 양심이 아직두 허락지 않았다.

“응 됐다. 어느 잘 살고 애 없는 집에다가 버렸으면 거뒀 주겠지.”³⁶⁾

④는 『탈출기』의 한 장면이다. 『탈출기』는 서술자 ‘나’, 즉 박군이 친구 김군에게 자신이 왜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서간체 형식의 소설이다. ‘나’는 오 년 전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자 가족을 데리고 간도로 왔다. 하지만 간도에는 가족들이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다. 자신이 온돌장이로 일하고, 어머니는 나무를 쪼고, 아내가 샅방이를 찢지만 빈곤은 날로 심해진다. 겨울이 되고 일자리가 없자 ‘나’는 가족을 살해하려는 충동을 느낀다. “시퍼런 칼이라도 들고 하루라도 괴로운 새를 모면하도록 쿡쿡 찢러 없애고”³⁷⁾ 자신마저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나’는 세상이 자신을 속였음을 깨닫고 집을 나선다.³⁸⁾ 문제는 ④에서 보듯, 자신이 가족을 버리면 가족

35) 『탈출기』, 『전집 상』, 23면.

36) 『기아』, 『전집 상』, 75면.

37) 『탈출기』, 『전집 상』, 22면.

38) 김동식은 주인공 박군이 집을 나가는 것을 사회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을 이동시키고자 한 행위로 본다. 김동식, 앞의 책, 192면. 다만 왜 그 행위가 가

들이 굶어 죽을 것을 알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나’가 가족을 버리는 행위는 곧 살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 소설에서 가족 유기는 일견 ‘나’가 집을 나선 것이 가족을 버릴 만큼 송고한 일이었음을 강조하지만, 현실도피의 혐의를 질게 된다. ⑤는 『기아』의 한 장면이다. 철호는 가장으로 극도의 빈궁한 삶을 살고 있다. 자신과 아내가 하루 종일 굶고, 아들 학범은 밥을 달라고 운다. 이에 철호는 “이꼴 저꼴 다 안보도록 깡그리 없애버리고 싶은 지극히 흑독한 심사³⁹⁾를 느낀다. 그는 처음에 학범을 한강에 빠뜨려서 죽이려 하였으나 곧 생각을 바꿔 인도주의자 최순호의 집에 유기한다. 아이에게 살해 충동을 느끼거나 인도주의자의 집에 버리면 잘 살게 되리라는 생각은 현실도피와 자기기만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철호가 세상을 ‘복마전’ 같이 보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결국 철호는 아이를 보고 싶어 순호의 집을 다시 찾아오지만 만나지 못한다. 자식을 버린 죄에 따른 대가를 치른 셈이다. 이 소설에서 가족 유기는 현실도피와 인과응보의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최서해 소설에서 가족 유기는 가족 살해에 준하며, 현실도피 외에는 달리 의미를 찾기 어렵기에 적극적 의미 생산에 실패한다.

⑦ 영감(김 좌수—인용자)은 입술을 깨물고 부릅뜬 눈으로 주먹을 내려다보고 있다. 힘 있게 버틴 팔 아래 억세이게 부르짖 주먹에는 환도 자루가 꽂 잡혔다. 환도가 내려친 곳에는 그가 사랑하던 아들(만득)의 몸이 모가지로부터 가슴으로 어숙하게 두 조각이 났다.⁴⁰⁾

⑧ 여러 사람의 소리가 끝나기 전에 응 하는 소리와 함께 방치들은 뒷문을 향하여 날았다

죽의 죽음을 전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있지 않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할 때 박군의 행동은 현실도피의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된다.

39) 『기아』, 『전집 상』, 71면.

40) 『그믐밤』, 『전집 상』, 250면.

“애고…… 으응…….”

꽁— 열리는 뒷문과 같이 학범 어미는 쓰러졌다.

(…)

방에 누인 학범 어미는 간신히 입속말로 부르고 고요히 운명하였다.⁴¹⁾

⑦은 「그믐밤」의 한 장면이다. 김 좌수의 아들 만득은 연주창에 걸려 있다. 의사는 산 뱀이 상처 난 목을 물게 하거나 환자에게 사람의 목고기를 먹이라고 처방한다. 김 좌수는 뱀이 만득의 목을 물게 하지만 병은 낫지 않는다. 이에 김 좌수는 선동 아비와 함께 머슴 삼돌이를 살해한다. 그 이후부터 김 좌수는 거무스름한 그림자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원귀를 물리치기 위해 머리맡에 긴 칼을 지니고 잠자리에 든다. ⑦은 김 좌수가 죽은 삼돌이가 나타나는 환각에 빠져서 아들 만득을 살해하는 장면이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설화적 분위기가 강하고, 타인의 목숨을 앗은 죄값으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잃고 만다는 인과응보적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에 나타난 가족 살해는 권선징악으로 대표되는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의 옹호라는 측면에서 읽을 수 있다. ⑧은 「폭군」의 한 장면이다. 춘삼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게 문을 닫고 술, 계집, 골패, 투전, 싸움에 빠진다. 술에 취하면, 아내를 폭행하고 장모를 학대한다. 장모는 죽으면서 딸에게 마음을 잘 쓰면 그 값을 받을 것이라고 유언한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춘삼은 아내를 폭행하고, 장모의 영좌를 부순다. 춘삼은 가로막는 아내에게 방치돌을 던지고, 아내는 허리가 부러져 사망한다. 이에 이웃 노파는 춘삼에게 벼락을 맞으라고 저주한다. 이 작품에서 가족 살해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춘삼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성인 같은 아내를 잃게 되는 것은 인과응보에 해당된다. 하지만 마음을 잘 쓰면 그 값을 받는다는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고, 고생을 참아가며 순종한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서 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이는 순종과 인내라는

41) 「폭군」, 『전집 상』, 145면.

이데올로기의 허위를 고발한다. 즉 이 작품에서 가족 살해는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옹호와 비판이라는 양가적 의미를 내포한다.

⑨ 내가 그런가? 공부도 있는 놈만 해야 하나? (...) 일을 하잖는다고? 일? 무슨 일?⁴²⁾

⑩ 경수는 모든 설움이 복받쳐서 눈물에 앞이 캄캄하였다. 일종의 분노도 없지 않았다. 세상은 너무도 자기를 학대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새삼스럽게 슬프고 쓰리고 원통하였다. 방안에 걸어놓은 약봉지까지 자기를 비웃고 가라고 쫓는 것 같았다.⁴³⁾

⑪ “아아, 부슈라! 모두 부슈라!”

소리를 지르면서 그는 별떡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식칼이 쥐어졌다. 그는 아악—소리를 치면서 칼을 들어서 내리찍었다. 아내, 학실이, 어머니, 할 것 없이 내리찍었다. 칼에 찍힌 세 생령은 부르르 떨며, 방안에는 피비린내가 탁해졌다.⁴⁴⁾

인용문은 「기아와 살육」의 장면들이다. 「기아와 살육」은 「토혈」의 개작인데, 「토혈」에 나타난 서사를 대체적으로 이어받되 사건의 진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 경수네 가족의 삶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다. 아내는 산후풍으로 신음하고 있고, 구들은 얼음장 같이 차고, 딸은 누덕 치마도 없어 입술이 파랗다. 여기에 안채에서 집세를 독촉한다. 이에 경수는 부양해야 하는 가족을 저주하고, “모두 다 죽어 주었으면 큰 짐이나 벗어놓은 듯이 시원”⁴⁵⁾ 하겠다고 생각한다. 아내를 진료한 최 의사가 일

42) 「기아와 살육」, 『전집 상』, 31면.

43) 위의 책, 35면.

44) 위의 책, 39면.

45) 위의 책, 32면.

년간 머슴살이 계약을 요구하고, 박 주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약을 지어주지 않는다. 여기에 월자(月子)를 팔아 줌쌀을 얻어오던 노모가 중국인의 개에 물려 사경을 헤매게 된다. 이에 경수는 식칼로 가족을 내리찍어 살해한다. ⑨는 경수가 중학까지 마쳤지만 가족을 못 살게 둔 것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는 장면이다. 여기서 경수는 공부하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학을 마친 사람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도 없음을 비판한다. 즉 보편 교육의 필요성과 일자리를 비롯한 사회보장의 측면을 문제 삼는다. ⑩은 돈이 없어 약국에서 약을 짓지 못한 경수의 내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약을 짓지 못하는 현실을 폭로하고, 그러한 세상이 자기를 학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수의 내면을 드러낸다. 이 장면은 보편적 의료 제도의 부재를 문제 삼고 있다. 최서해가 희망하는 사회의 모습, 즉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살아갈”⁴⁶⁾ 모습은 『탈출기』에서는 의식주와 교육이 확보된 사회⁴⁷⁾로 그려진 바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⑪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수의 가족 살해는 단순히 삶의 고통에 기인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최서해가 생각하는 근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다시 말해 굶주리지 않을 권리,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근대적 사회이다. 이 소설에서 극단적 가족 살해는 제도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렇게 볼 때 『기아와 살육』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제도로서의 근대가 부재하고 있음을 가장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서의 근대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전근대적인 구제 방법, 즉 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최서해 소설에 나타난 사적 폭력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46) 위의 책, 32면.

47)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뜨뜻이 지내자. 그리고 깨끗한 초가나 지어 놓고 글도 읽고 무지한 농민들을 가르쳐서 이상촌을 건설하리라.” 『탈출기』, 『전집 상』, 17면.

3. 사적 폭력, 근대적 제도의 확립 희망

“살인, 강도협잡으로 도주해야 온 사람도 있고 망명객도 있다. 마치 수호전 중의 양산백(梁山伯) 가튼 늦김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생활곤란을 못 넘어 남부여대로 들어온 사람이 그 대부분(多部分)이다.”⁴⁸⁾ 최서해가 만주 방랑시절을 떠올리며 쓴 수필의 일부분이다. 이 글에서 최서해는 조선에서 살기 어려워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로 이주한 조선의 유이민들이 약이 없어 아편을 먹는 상황을 개탄한다. 지금까지 최서해 소설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 대한 저항의 의미에서 논의되어 왔다.⁴⁹⁾ 하지만 그의 작품을 세심히 살펴보면 달리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최서해의 일부 소설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의 제도가 아니라 제도의 부재 자체를 문제 삼는다.⁵⁰⁾ 다시 말해 부정적 제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그래서 작동해야 한다는 기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⁵¹⁾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개인은 자살을 하거나 사적 복수를 감행할 수밖에 없다.⁵²⁾ 실제로 최서해가 작품활동을 전개하던

48) 최서해, 『신음성 1—병상일기에서』, 『동아일보』, 1926.7.10.

49) 박근, 『항일소설』, 『최서해의 삶과 문학 연구』, 푸른사상, 2014, 165-190면 참고.

50) 홍기돈은 만주의 제도 부재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국가를 빼앗긴 까닭에 그네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법에 의거한 안전망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무법천지에 내던져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홍기돈, 앞의 책, 432면. 안용희는 최서해 소설에 나타난 광기와 분노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최서해 소설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제도적 관리의 상태를 벗어나 국가의 인구가 되지 못하는, 관리되지 못하는 배제의 단계에서 극도의 억압을 인식하는 순간에 광기를 통해 그 분노의 막대함이 표출된다.” 안용희, 앞의 책, 29면.

51) 세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의 기원이 고통에 갇힌 자의 간절할 기도일 수 있다는 논의는 다음을 참고. 정은경, 『기도이거나 비명이거나, 어떤 문장은』, 『밖으로부터의 고백—디아스 포라로 읽는 세계문학』, 파란, 2017, 120-131면.

52) 1920년대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변화 과정은 이경림에 의해서 논의된 바 있다. 이경림은 1920년대 낭만주의를 개인에게 폭력을 되돌려 준 문학사적 계기로 규정하고, 부정형의 낭만주의적 폭력이 사회주의적 미래의 건설을 위한 도구로서 회수되는 과정을 돌아본다. 이경림, 『자살과 살인 사이—1920년대 소설과 폭력의 새벽』, 『반교어문연구』 51, 반교어문학회,

1920년대 중반에 발행된 신문기사에서 자살이나 개인의 사적 복수를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 시기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살펴보면, 「법정에서 단도로 복수」(1924.4.4.), 「일인(日人)의 폭행으로 동포 오 명 중경상」(1925.4.30.), 「형의 복수로 방화」(1925.11.6.), 「이십여 명의 재일동포 처자동반으로 철도자살」(1925.4.30.) 등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정에서 단도로 복수」는 일본 자목현에서 방축공사를 하던 조선인 토공과 일본인 토공 사이의 싸움을 다룬 기사이다. 싸우는 과정에서 조선인 토공 허진안이 사망하고, 가해자인 일본인 토공들이 기소되어 공판이 열린다. 공판장에서 허진안의 친구 허진담이 복수하기 위해 단도를 빼들었지만 경관에 의해 제지당한다. 법정은 근대적 사법 제도의 핵심적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조선인이 사적인 복수를 감행했다는 것은 일본 법정이 일본인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에 기인한다. 즉 사적 복수는 법치주의의 부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일인(日人)의 폭행으로 동포 오 명 중경상」은 일본 기부현에서 일어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시비를 다룬 기사이다. 시비 과정에서 조선인이 중상을 입고,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인 수십 명이 분풀이를 하고자 흥기를 들고 복수하려 했지만 촌민들이 말렸다는 내용이다. 폭행이 또 다른 폭행을 불렀다는 것, 다시 말해 양 국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정당한 법 집행이 부재하다는 것이 요점이다. 「형의 복수로 방화」는 함경남도 단천군에 사는 김사룡이 학질에 걸려 약사 김중천과 김삼만의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고, 이에 동생 김해룡이 복수하기 위해 식칼을 들고 김삼만의 집을 습격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이다. 일종의 의료 과실 사건에 해당되는데, 유가족

2019, 15-48면 참고. 최서해 소설에 나타난 사적 폭력에 대해서는 최병구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최병구는 기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주인공들의 폭력적 행동이 생존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논의했다. 최병구, 앞의 책, 189면. 이에 비해 이 논문은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을 넘어 올바른 제도의 확립을 욕망한다고 보는 시각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 약상에게 사적인 복수를 감행한다는 것은 의료 과실에 따른 갈등을 중재할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십여 명의 재일동포 처자동반으로 철도자살』은 일본 동경에서 철도 부설 인부로 일하는 조선인의 낱살을 일본인 십장이 횡령하여 도주했고, 이에 저녁도 못 먹게 된 조선인 동포들이 한 곳에 모여 죽으려 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이다. 일본인 십장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낱살을 횡령하여 도주한 것은 개인적 범죄라고 볼 수 있으나, 개인이 그러한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예방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데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집단 자살을 기도할 만큼 사회적인 보호제도가 부재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살이나 사적 복수는 단순히 광기와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근대적 제도의 부재를 고발하고, 제도의 확립과 정당한 집행을 희망하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장에서는 사적 폭력을 다룬, 최서해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예구, 내 박돌이가 죽는구나! 한심한 세상두 있는게?”

(…)

“너무 한심하구만! 돈이 없더구 너무 업시비 보지 마오.”⁵³⁾

② “흑흑 바…… 바…… 박돌아! 에고 내 박돌아! 너는 죽었구나! 약 한 침 침 한 대 못 맞아 보고 너는 죽었구나!”

(…)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항상 배를 곯다가……. 좋은 세상 못 보고 죽다니! 휴! 제마! 제마! 나도 학교를 갔으면 하는 것도 이놈의 입이 원슈 돼서 못 보내고! 흑흑.”⁵⁴⁾

53) 『박들의 죽음』, 『전집 상』, 58면.

54) 위의 책, 63면.

③ “이놈아! 내 박돌이를 불에 넣었으니 네 고기를 내가 씹겠다.”

박돌 어머니는 김 초시의 가슴을 타고 앉아서 그의 낫을 물어뜯는다. 코, 입, 귀…… 검붉은 피는 두 사람의 온몸에 발리었다.⁵⁵⁾

인용문은 『박돌의 죽음』의 장면들이다. 박돌은 상한 고등어를 먹고 배에 탈이 난다. 박돌의 어머니 파충댁은 의사인 김 초시를 찾아와 진료를 요청하지만 김 초시는 진료를 거부하고 약도 지어주지 않는다. ①은 진료를 거부당한 파충댁이 한탄하는 장면이다. 한탄의 핵심은 환자가 돈이 없으면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데, 그리고 그러한 세상은 한심한 세상이라는 데 있다. 이 장면은 근대적 의료 제도의 부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다. ②는 박돌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열 두 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자 파충댁이 통곡하는 장면이다. 파충댁의 통곡은 단순히 자식이 죽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돌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을 못 입고, 학교에도 못 가고, 약 한 첩 침 한 대 못 맞고 죽어서 슬픈 것이다. 인간다운 삶의 근본 조건이 의식주와 교육, 의료에 있다고 보는 최서해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희망의 줄”⁵⁶⁾이 끊어진 파충댁은 ‘김병원진찰소’를 찾아가 김초시 얼굴을 물어뜯는다.⁵⁷⁾ ③은 파충댁이 김 초시에게 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다. 김 초시는 파충댁에게 가슴을 눌린 채 코, 입, 귀를 물어뜯긴다. 얼핏 『박돌의 죽음』은 돈 때문에 환자를 외면한 김 초시가 결국 자신의 죄값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과응보·권선징악의 전근대적 이데올로기를 답습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더군다나 김 초시에게 행사하는 파충댁의 폭력은 사적 복수에 다름없고, 그 방법이 정당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이면적으로 근대적 의료 제도의 부

55) 위의 책, 66면.

56) 위의 책, 64면.

57) 이와 관련하여 최병구는 『박돌의 죽음』을 언급하며 ‘공포’가 일상의 불행을 만들어낸 근대의 제도를 단죄하는 효과를 거둔다고 논의한다. 최병구, 앞의 책, 190면. 김초시에 대한 박돌 어머니의 사적 복수를 제도에 대한 단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재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될 수 없다.

④ 작년 봄에 이 마을 밖으로 철도가 났다. 그 때문에 저편 산 아래로 돌려 놓은 물은 철교를 지나서 이 마을 뒷 방축을 향하고 바로 흐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촌민들은 군청, 도청, 철도국에 방축을 더 굳게 쌓아 주든지, 철교를 좀 비스듬히 놓아서 물길이 돌게 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여러 번이나 들였으나 조금의 효과도 얻지 못하였다. 작년 여름 물에 이 방축이 좀 터졌으나 호소할 곳이 없었다. 그 뒤로 비만 내리면 촌민들은 잠을 못 자고 방축을 지켰다.⁵⁸⁾

⑤ 집을 잃고 밭을 잃고 부모를 잃고 처자를 잃은 무리들은 거기서 삼십 리나 되는 읍으로 나갔다. 윤희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네들은 읍에 나가서 정거장의 노동자, 물지게꾼, 흙질꾼, 구들 고치는 사람— 이렇게 그날 그날을 보내었다. 어떤 자는 이집 저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어먹었다.⁵⁹⁾

인용문은 「큰물 진 뒤」의 장면들이다. 이 작품은 을축년 대홍수를 소재로 하고 있다. ④는 사건의 원인을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다. 윤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운명은 방축의 관리에 달려 있다. 마을 사람들이 노력하여 물길을 돌려 놓았으나 작년 봄에 철도가 나면서 물길이 마을 뒤쪽으로 바로 흐르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는 단순히 마을 밖에 철도가 생겼다는 데 있지 않다. 철도의 부설이 마을 사람들과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 나아가 방축을 더 굳게 쌓거나 철교를 비스듬히 놓아달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되었다는 데 있다. 군청, 도청, 철도국 어디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 근대적 제도 및 기관이 조선인을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58) 「큰물 진 뒤」, 『전집 상』, 124-125면.

59) 위의 책, 128면.

다는 것이 문제다. 다시 말해, 마을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의 의견을 들어줄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려하던 대로 방축이 터지고 마을 사람들은 집과 밭, 가족을 잃게 된다. ②는 수재가 난 이후 마을 사람들의 삶을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다. 마을 사람들은 수재가 나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십 리나 떨어진 읍에 나가 하루 벌어 하루 먹거나 남의 집을 돌며 밥을 빌어먹는다. 수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지원할 그 어떤 제도도 부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생존은 오로지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⑥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남이 욕하든지 때리든지 가만히 있어라— 이러한 것을 자기는 조금도 어기지 않고 지켜 왔다. 그러나 이때까지 자기에겐 남은 것은 풀막— 그것도 제 손으로 지은 것— 병, 굶주림, 모욕밖에 남은 것이 없다. 집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귀중한 피까지 바치면서도 가만히 순종하였건만 누구 하나 이렇다 하는 이가 없었다. (...) 그저 이대로 있어서는 살 수 없다. 병으로 살 수 없고 배고파 살 수 없고— 결국 목숨을 바치게 된다.⁶⁰⁾

⑦ “흥, 낸들 이 노릇이 좋아서 하는 줄 아니? 나도 양심이 있다. 양심이 아픈 줄 알면서도 이 짓을 한다. 이래야 주니까 말이다. 잘 있거라!”⁶¹⁾

수재로 인해 윤호는 갓 태어난 아이를 잃는다. 산후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아내의 병세는 갈수록 심화된다. 지게가 망가져 일터에 늦게 도착한 윤호는 감독관에게서 폭력을 당하고 폭언을 듣는다. ⑥은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난 후 윤호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윤호는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거나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는 믿음의 대가가 병과 굶주림, 모욕임을 깨

60) 위의 책, 130면.

61) 위의 책, 134면.

닫는다.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의 허위를 깨닫고, 누구 하나 이렇다 하는 이가 없는 현실에 절규한다. 다시 말해 선한 사람을 착취하고 모욕하는 세계의 실상만큼이나 문제적인 지점은 선한 사람을 도울 제도가 부재하다는 데 있다. 인물의 극단적인 사적 폭력은 세계의 폭력보다는 그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구제할 제도의 부재에 기인한다. 때문에 최서해 소설에서 사적 폭력은 자력구제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결국 윤호는 이근춘의 집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강도질을 한다. ⑦에서 강도질이 아니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윤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⑧ 용례를 본 인가는 문 서방의 아내는 놓고 문 서방의 딸 용례를 잡았다.

“이 개새끼야! 이것 놔라…… 응응 흑…… 아이구 아버지…… 엄마!”
(…)

낮빛이 파랗게 질린 흰옷 입은 사람들은 쪽 나와서 섰건마는 모두 시체 같이 서 있을 뿐이었다.⁶²⁾

⑨ “저게(아내) 마지막 죽어가는데 철천지한이나 풀어야 하잖겠소, 응? 한 번만 보여 주! 어서 그러우! 내가 용례를 만나면 꼬일까봐…… 그럴 리 있소! 이렇게 된 바에야…… 한 번만…… 낮이나…… 저 죽어가는 제 에미 낮이나 한 번 보게 해 주! 네? 제발! ……”

“안 되우! 보내지 모하겠소. 우리지비 문바께 로포(아내—용례를 가리키는 말) 나갔소. 재미어부소.”⁶³⁾

⑩ “으음 끄.”

문 서방이 여러 사람을 헤치고 두 그림자 앞에 가 섰을 때 앞에 섰던 장정의 그림자는 땅에 박혔다. 그때는 벌써 문 서방의 손에 쥐었던 도끼

62) 『홍염』, 『전집 하』, 17면.

63) 위의 책, 20면.

가 장정 인가의 머리에 박혔다.⁶⁴⁾

인용문은 「홍염」의 장면들이다. 삼 년 전 경기도에서 소작인 생활을 하던 문 서방은 겨죽만 먹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서간도로 이주한다. 하지만 중국인 지주 인가의 지팡살이를 하다가 소작료를 못 갚게 된다. 이에 인가는 문 서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딸 용례를 납치한다. ⑧은 인가가 용례를 납치하지만 누구도 막아지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합리적인 소작료 책정은 둘째 치고 지주가 소작인을 폭행하고 그 딸을 납치하는데도 막는 사람이 없다. 즉 소설의 배경이 무법지대임을 짐작할 수 있다.⁶⁵⁾ 이 공간에서 제도는 기능하지 않는다. 인가는 용례를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고, 문 서방의 아내는 딸을 찾다가 피를 토하고 병석에 눕는다. ⑨는 문 서방이 인가를 찾아가 딸을 보여 달라고 애원하다가 거부당하는 장면이다. 결국 문 서방의 아내는 딸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이 불가해하고 모순된 상황이 문 서방을 극단적 폭력으로 이끈다. ⑩은 문 서방이 인가에게 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다. 문 서방은 인가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도망 나오는 인가의 머리를 도끼로 찍는다.

최서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근면하다. 이들이 겪는 비참한 삶과 그로 인한 고통이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가족 살해와 사적 폭력에 공감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가족 살해와 사적 폭력 자체가 독자의 전적인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 살해는 윤리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복수를 통한 사건 해결은 결국 인과응보·권선징악 등의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의 답습 이외에 다른 의미를 생

64) 위의 책, 26면.

65) 같은 간도 배경 작품인 「해돋이」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네들은 일본과 중국과의 이중법률(二重法律)의 지배를 받는다. 아무런 힘없는 그네들은 두 나라 틈에서 참혹한 유린을 받고 있다. 그래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다.” 『해돋이』, 『전집 상』, 206면. 간도는 일본과 중국, 양국의 법률 아래 있지만, 어느 법률에도 호소할 수 없는 모순된 공간이다. 이 모순은 이곳의 무법적 성격, 즉 제도의 부재를 드러낸다.

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서해는 가족 살해와 사적 폭력의 정당성을 인물의 자기 처벌⁶⁶⁾ 충동에서 찾는다.

⑪ “아아 자식이 오직 그림고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랴? 아! 뱀의 새끼 같은 나는, 소위 자식은 그런 부모를 버리고 가려고 해……. 아니 칼로…… 응 옥.”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때 ‘어서 올려라’ 하고 무서운 악마들이 자기를 교수대로 끌어올리는 듯하였다.⁶⁷⁾

⑫ 그 모든 것이 보기가 싫었다. 주위는 검은 연기가 들어찬 것 같았다. 그만 칼이나 도끼로 아내를 푹 찍어서 그 꼴을 보지 말고 자기도 죽어 버리고 싶었다.⁶⁸⁾

⑬ 시퍼런 칼이라도 들고 하루라도 괴로운 생을 모면하도록 쿡쿡 찢러 없애고 나까지 없애지든지, 나가서 강도질이라도 하여서 기한을 면하는데 하는 수밖에는 더 도리가 없게 절박하였다.⁶⁹⁾

인용문 ⑪은 『해돋이』의 한 장면이다. 만수는 삼일운동에 참여하여 함흥 감옥에서 1년간 수감되었다. 그는 “불합리한 사회 역경에 든 사람들의 고통”⁷⁰⁾을 목격하고 인류를 위해 살려고 결심한다. 만수는 고향을 떠나 간도로 가려 하지만 어머니 김 소사가 같이 가기를 원한다. ⑪은 만수가 어머니를 버리려고 하다가 자신을 자책하는 장면이다. 만수는 스스로를

66) 정호웅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자기 처벌자의 양상을 ‘자기 파괴의 자기 처벌자’와 ‘자기 추방의 자기 처벌자’로 구분하여 논의한 바 있다. 정호웅, 『한국 소설 속의 자기 처벌자』, 『구보학보』 7, 구보학회, 2011.6, 190-214면 참고.

67) 위의 책, 203면.

68) 『아내의 자는 얼굴』, 『전집 상』, 322면.

69) 『탈출기』, 『전집 상』, 22면.

70) 『해돋이』, 『전집 상』, 200면.

뱀의 새끼에 비유하여 비하한다. 이어 자신을 교수대에 올려 처형되려는 충동을 느낀다. 자책감과 후회가 자기 처벌의 충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⑫는 『아내의 자는 얼굴』에서 기선이 스러져 자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죽고 싶은 충동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책임감이 자기 살해의 충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⑬은 『탈출기』에서 서술자 ‘나’가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마저도 목숨을 끊으려는 충동을 느끼는 장면이다. 먹을 것이 없어 아내는 남이 버린 굴뚝질을 주워 먹고, 진종일 땀뭉칠을 해서 만든 두부는 쉬어 버리고, 산주인 몰래 나무를 해오다가 경찰서에 여러 번 잡혀가는 상황에서 ‘나’는 가족을 죽이고 자신마저도 목숨을 끊으려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인물들의 자기 처벌 충동은 모두 가족 살해 충동과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바탕에는 사랑과 책임감이 있다. 이것이 최서해 소설에 나타나는 가족 살해라는 극단적 행위가 이들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고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동기로 작용한다. 가진 것이 없는 이가 대상에 대한 사랑과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을 거는 일뿐이다. 모랄의 핵심이 “추한 현실과 ‘데카당’의 진흙탕을 넘어 애정과 인간성의 절대적 경지를 추구”⁷¹⁾하는 것에 있다는 김기림의 말에 동의한다면, 최서해 소설에 나타나 자기 처벌 충동은 최서해가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랄일 것이다.

4. 나오며

최서해 소설처럼 가족 살해를 강렬하고 비참하게 묘사한 소설을 찾기는 어렵다. 최서해 소설처럼 사적 폭력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공

71) 김기림, 『이상의 문학의 한 모(貌)』, 『김기림 전집 3』, 심설당, 1988, 181면.

감을 얻는 소설 역시 찾기 어렵다. 때문에 등장인물이 어째서 가족을 살해해야만 했는지, 어째서 가족 살해가 윤리의 과탄으로 읽히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최서해 소설에 나타난 가족 살해와 사적 폭력의 의미를 밝혔다.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서해 소설에 나타나는 가족 살해는 설화, 신소설 등의 가족 살해 모티프를 계승했지만 그 양상이 다르다. 가족 살해를 다룬 최서해의 소설은 양상에 따라 가족 살해 충동을 느끼는 작품과 가족 살해를 실행하는 작품으로 구분되고, 가족 살해를 실행하는 작품은 양상에 따라 가족 유기와 가족 살해로 구분된다. 이 소설들의 주제의식은 인과응보·권선징악 등의 전근대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경우,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옹호와 비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근대적 제도의 부재를 비판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토혈」, 「해돋이」, 「아내의 자는 얼굴」에 나타나는 가족 살해 충동은 한 가족의 빈곤과 그에 따른 고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그 비극성을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탈출기」, 「기아」에 나타나는 가족 유기는 현실도피 외에는 달리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믐밤」, 「폭군」 등에서 나타나는 가족 살해는 전근대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옹호와 비판의 양가적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기아와 살육」에서 보여주는 극단적 가족 살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로서의 근대가 부재함을 고발한다. 그리고 근대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서해 소설에서 사적 폭력은 단순히 광기와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근대적 제도의 부재를 고발하고, 제도의 확립과 정당한 집행을 희망하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박들의 죽음」은 근대적 의료 제도의 부재를, 「큰물 진 뒤」는 수재민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제도의 부재를, 「홍염」은 간도가 제도가 부재하는 무법지대라는 사실을 고발한다.

최서해 소설에서 인물의 자기 처벌 충동은 가족 살해 충동과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바탕에는 사랑과 책임감이 있다. 여기에 가족 살해라는

극단적 행위가 소설 속 인물들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고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이유가 있다. 인물의 자기 처벌 충동은 최서해가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랄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개벽』, 『동아일보』, 『매일신보』, 『삼천리』, 『조선문단』, 『조선중앙일보』, 『한국문학』
곽근 편, 『최서해전집 상·하』, 문학과지성사, 1987.
곽근 편, 『최서해 작품, 자료집』, 국학자료원, 1997.
곽근 편, 『최서해 단편선 탈출기』, 문학과지성사, 2004.

2. 단행본

- 곽근, 『최서해의 삶과 문학 연구』, 푸른사상, 2014.
김기림, 『김기림 전집 3』, 심설당, 1988.
김성욱, 『최서해 소설 연구』, 지식과교양, 2012.
김치홍 편, 『김동인평론전집』, 삼영사, 1984.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입화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4.
신춘호, 『최서해—궁핍과의 문학적 싸움』,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전집(II)』,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임규찬 편, 『입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정은경, 『밖으로부터의 고백—디아스포라로 읽는 세계문학』, 파란, 2017.

3. 논문

- 곽근, 『최서해 연구사의 고찰』, 『반교어문연구』 22, 반교어문학회, 2007.2, 175-201면.
김동식, 『1920년대 중반의 한국문학과 ‘끼니’의 무의식: 김기진과 최서해, 그리고 ‘밥’의 유희론』, 『문학과환경』 11(1), 문학과환경학회, 2012.6, 175-205면.
김재영, 『최서해 초기 소설에 형성된 “공포”와 “파국의 상상력”』, 『현대문학의 연구』 5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2, 291-320면.
박현수, 『최서해 소설의 승인 과정과 에크리튀르의 문제—조선문단합평회와 『개벽』 ‘월평’을 통해 본 1920년대 중반 문단의 지형도』, 『반교어문연구』 26, 반교어문학회, 2009.2, 375-404면.
석형락, 『세계를 버리는 자들의 목소리—김이설, 임철우의 근작 읽기』, 『문예연구』 81, 2014년 여름, 문예연구사, 210-220면.
석형락, 『근대문단 형성기 작고 작가 애도문 연구—한국근대작가론의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현대소설연구』 6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12, 205-249면.
안용희, 『“그늘에 피는 꽃”, 최서해 문학의 아포리아』, 『민족문학사연구』 57, 민족문학

- 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5.4, 9-38면.
- 유승환, 『1923년의 최서해—빈민 작가 탄생의 문화사적 배경』, 『한국현대문학연구』 52, 한국현대문학회, 2017.8, 221-264면.
- 이경돈, 『최서해와 기록의 소설화』, 『반교어문연구』 15, 반교어문학회, 2003.8, 119-141면.
- 이경림, 『자살과 살인 사이—1920년대 소설과 폭력의 새벽』, 『반교어문연구』 51, 반교어문학회, 2019, 15-48면.
- 임형모, 『한국과 몽골설화에 나타난 “가족 살해” 모티프—친부 및 자식 살해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6, 한성어문학회, 2007.9, 394-400면.
- 정호웅, 『한국 소설 속의 자기 처벌자』, 『구보학보』 7, 구보학회, 2011.6, 190-214면.
- 차남희, 『노동의 신성화와 동학의 근대성—최시형을 중심으로』, 『담론201』 13(2), 한국사회역사학회, 2010.5, 45-64면.
- 최병구, 『운명과 행복, 근대(인)의 자기인식과 그 매개—최서해 소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72집, 국제어문학회, 2017.3, 181-202면.
- 최진옥, 『신소설에 나타난 가족 살해 모티프와 가족주의 고찰—최찬식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1, 한국현대문학회, 2013.2, 21면.
- 한수영, 『분노의 공과 사—최서해 소설의 분노의 기원과 공사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8,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9, 363-398면.
- 홍기돈, 『최서해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비평문학』 30, 한국비평문학회, 2008.12, 427-443면.

〈Abstract〉

Meaning of Family Murder and Private Violence in Choi Seo-hae's Novel

Seok, Hyeong-Rak

This paper revealed the meaning of family murder and private violence in Choi Seo-hae's novel. The family murder in Choi Seo-hae's novels inherited family murder motifs such as tales and new-novels, but its aspects are different. Choi Seo-hae's novels dealing with family murder are classified into works that feel the urge to kill the family and works that carry out family murder by its aspects. And works that carry out family murder are classified into family abandoning and family killing. The theme consciousness of these novels can be divided into the case of defending pre-modern ideology such as retributive justice and prosaic justice, the case of advocating as well as criticizing pre-modern ideology, and the case of criticizing the absence of modern institutions. The impulse to kill a family specifically depicts the poverty and suffering of a family and expresses its tragedy realistically. However, family abandonment is hard to find any other meaning except escape. Family murder implies a quantitative sense of advocacy and criticism of pre-modern ideology. Extreme family killings, in particular, accuse the absence of modernity as an institution in which human beings can live to humanize. And the absence of modernity inevitably leads to private violence. In Choi Seo-hae's novels, private violence can be read as an expression of the absence of modern institutions and the hope of establishing and just

executing them rather than as an expression of madness and anger. Private violence accuses the absence of a modern medical system, the absence of a system to comfort and support the flood victims, and the fact that Gando is a lawless zone where the system is absent. In Choi Seo-hae's novels, the self-punishment urges of the characters coincide with the urge to kill the family, which is based on love and responsibility. This is why the extreme act of family murder emphasizes the miserable lives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 and draws sympathy from the readers. The impulse of self-punishment in characters can be seen as the least morals that Choi Seo-hae can present.

Key words: Choi Seo-hae, Family Murder, Private Violence,
Self-Punishment, Moral

투 고 일 : 2019년 8월 15일

심 사 일 : 2019년 8월 19일-9월 7일

게재확정일 : 2019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9년 9월 26일